

트레이너 필요하세요?

09/29/2024

지난여름 아이들과 가까운 수영장에 갔습니다. 어렸을 때 분명히 수영을 배웠었고, 바닷가에서도 계속 수영을 조금씩 해왔기에, '나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막내가 어려서 막내를 안고 있느라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막내도 혼자 물에 떠있을 수 있게 되어 드디어 혼자 수영레인을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물살을 갈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팔을 크게 돌리며 자유형을 하려니 갑자기 어깨에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금세 몸은 수영의 기억을 되찾고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저는 고작 20미터도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바를 잡고 멈춰야 했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더 이상 수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뜨는 법도 알고, 발차는 법도 알고, 어깨를 돌리며 손바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는데, 근지구력이 너무나 약해진 저는 도무지 '수영'이라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이런 수영 실력으로 물에 빠지면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런 부분이 비단 근력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꾸준히 해나가는 지구력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순발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상황을 대처해 나갔던 삶의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훈련의 과

정은 없습니다. 신체적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같은 운동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 마음, 그리고 영혼도 단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세월이 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되지.'라고 생각만 할 뿐,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이 내 삶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제가 수영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저 자기 혼자만의 착각 일수 있습니다.

신체를 단련할 때에 목표를 잡아주고, 계획을 세워주며, 훈련을 돕는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단련함에 온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 17:3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참 관심이 크셔서 친히 그것을 단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마음은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와 코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상, 한번 시작하신 훈련은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종종 같은 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은 어디 운동하세요? 상체? 하체?"라고 서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어떤 훈련 중이신가요?"